

# “금리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자” 6개월 이상 정기예금 ‘역대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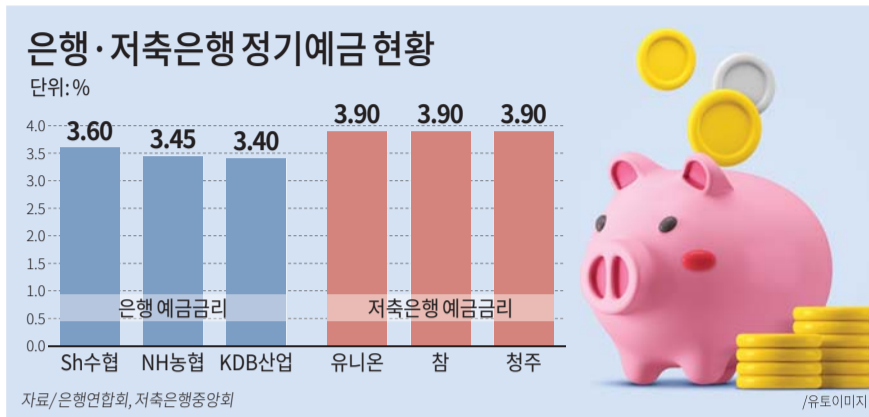
한은, 총 잔액 852조 집계  
1년 이상 2년 미만 592조 가장 많아  
작년 말부터 정기예금 가입자 급증  
2금융권도 이미 4% 상품 사라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6개월 이상을 만기로 한 정기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예금 금리가 더 낮아지기 전에 장기간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만기 6개월 이상 정기예금 잔액은 총 852조2138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예금 잔액은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이 592조4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6조7770억원, 2년 이상 3년 미만이 32조6108억원, 3년 이상이 30조782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증가세를 보던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은 10.1%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3년 이상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 5.3%, 2년 이상 3년 미만 정기예금은 4.5%,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은 2.9% 증가했다. 반면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은 0.2% 증가에 그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은 지난 2022년 말 금리가 더 오를 경우 다른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지금은 금리가 더 내릴 것에 대비해 만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금융권에서도 연 4%대 금리의 정

기예금은 사라진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단리) 중 가장 기본금리(우대금리 제외)가 높은 상품은 Sh수협은행의 헤이(Hey) 정기예금(연 3.6%)이었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은 연 3.45%, KDB산업은행의 ‘KDB정기예금’은 연 3.4% 금리를 제공했다.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같은 기준 상품 중에서는 유니온·참 저축은행의 ‘e-정기예금’이 연 3.9%를 금리를 제공한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한-체코 ‘핫라인’ 개설... 원전계약 지원

정부, 연내 5조 규모 설비수출 도와  
원전 수출선도 산업 육성에 총력전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 최종 계약 협상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한-체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또 제3, 제4 원전수출을 창출하고 연내 5조원 규모 원전설비수출을 지원하는 등 원전을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추진위는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한 원동력이었고,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학계와 연구기관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한국의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약협상에 임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을 밀착 지원한다.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오는 9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산업 공급망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반 구축

산업부-대한상의-11개 협회 등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  
탄소데이터 연구 플랫폼 구축하기로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배터리 등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부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간 탄소데이터를 공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자동차·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

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배터리·자동차·가전·철강/알루미늄·석유 등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탄소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뒤, 향후 전체 업종과 전체 산업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사업은 기존 개별기업 중심 지원을 벗어나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FTA·통상종합지원센터’를 윈스톱 통합창구로 활용해 글로벌 탄소규

제 관련 기업 애로상담과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특히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은 별도로 ‘탄소통상 규제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등 업계의 규제 대응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길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수출,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 등에서 민관이 팀 코리아로서 힘을 모으고 있듯이, 산업 공급망의 탄소중립 역시 민관이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의 도전에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대대적인 산업 혁신의 캠페인으로서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케이블 포설을 준비하고 있다.

## 대한전선, 美서 1900억 역대최대 수주

올해 누적 5200억 신규수주 성과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역대 최대 수주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대한전선은 미국 판매법인인 T.E.U.S.A가 미국 동부에서 1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이자, 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역대급이다.

대한전선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미국에서만 약 5200억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렸다. 북미 진출 이후 최대 성과를 낸 2022년 연간 누적 수주액 4000억원을 반년 만에 크게 넘어섰다.

대한전선은 미국 동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 전력망을 신규 전력망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에 138kV, 345kV급의 케이블과 접속재 등 초고압 전력망 자재 일체를 공급한다.

미국의 지중 전력망은 50% 이상이 교체 시기인 40년을 넘어선 것으로 확

인된다. 여기에 AI와 반도체 발전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대한전선은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이번 대형 계약을 통해 추가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업체 선정 시 기술, 품질, 안정성 등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미국에서 여러 전력청을 대상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 및 수행한다는 것으로 회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년간 북미 전력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매김해 온 만큼, 수출을 극대화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지난 연말에 뉴욕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해 노후 전력망 교체에 특화된 제품과 특허 받은 신기술을 선보였으며, 올해 3월에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노후 전력망 교체 터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로템, 김포골드라인 증차분 조기투입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운행

김포골드라인 증차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로템은 김포골드라인 증차분 총 6편성(12량) 중 초도 편성분이 예정보다 6개월 앞선 지난달 영업 운행에 투입됐다고 25일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 2019년 9월 개통된 김포시 첫 노선으

로, 양촌역(김포 한강신도시)과 김포공항역(서울 강서구)을 잇고 있다.

1편성당 2량으로 구성됐으며 운행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이다. 김포골드라인에서 시운전을 마친 초도 편성의 경우 애초 계획했던 오는 12월보다 6개월 빠른 지난달 28일 영업 운행이 시작했다. 2·3편성은 다음 달 30일에, 나머지 4·5편성은 오는 9월 30일 운행이 이뤄진다.

지난해 추가 계약한 1편성(2량)은 연내 납품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오는 9월 말까지 5편성 투입이 완료되면 현재 200%(1명 탑승 공간에 2명이 탑승) 이상인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은 17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열차 운행 간격도 기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되고 출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운행 횟수는 기존보다 10회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양성운 기자